



초록의 제주

지난 5월 초 연휴 때 갑작스레 친구들과 제주도를 방문했다. 부산을 갈까, 남해를 갈까하며 의견을 나누다가 “같은 값이면 제주도지!”하는 생각으로 출발했다. 길진 않지만 짧지도 않은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싶은 결과 였다고 본다. 부랴부랴 비행기를 예약하고, 숙소를 잡고, 렌터카를 알아봤다. 아뿔싸! 렌트하는 비용이 평소 의 2배였다. 역시 연휴라 생각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예약을 했다. 누가 그랬던가, 여행은 준비 과정과 바로 직전의 시간이 가장 설렌다고...

제주 1일차

오전 비행기값은 이미 비쌌기에, 오후 4시 비행기로 예약을 했다. 저가항공이지만 1시간의 짧은 거리이기에 탑시의 불편함은 문제되지 않았다. 오후 5시쯤 제주에 도착해 렌터카를 찾고, 동쪽으로 향했다. 함덕해수욕장 근처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파아란 에메랄드의 바닷가를 생각하고 달린 도로는 목 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안개가 심해지는 것이었다. 불안했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숙소 앞이 바다였지만 바닷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가득했고, 마치 공포영화의 배경을 연상하듯, 이미 필자가 알고 있는 제 주의 모습이 아니었다. 더욱이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저녁을 먹으러 인터넷에서 찾은 맛집을 방문했지만 이미 재료가 떨어져 문을 닫은 뒤였다. 결국, 이리저리 헤매다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 었다. 그래도 ‘내일은 다르겠지’하며, 날씨를 재확인했다.

제주 2일차

일찍 일어나 라면을 끓였다. 조금이라도 여행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전날 마트에서 홍합도 사서 씻어 놓기도 하였는데, 약간 냄새가 났지만 괜찮을 거라며, 서로 위안을 했지만 막상 라면에 넣었을 때는 먹기가 힘들 정도였다. 몇 젓가락으로 그렇게 겨우 아침을 먹는 동안 마는 듯하며, 동쪽으로 길을 떠났다. 제주하면 사방으로 널린 푸른 바다가 떠오를 정도로 해안도로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다행히 날씨도 괜찮았던터라 한적한 도로를 가다 보니, 이제야 제주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중간에 잠시 들른 비자림은 전에 가보았던 사려니숲보다는 정돈된 모습이었다. 이름처럼 비자나무를 사방에서 볼 수 있었고, 출입문을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숲의 향기는 '과연 비자림이다'라고 속으로 되새기게 하였다. 1시간 남짓의 시간으로 온몸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고, 유명 관광지였기 때문에 오후가 되니 불어나는 사람을 보며, 신속히 다음 장소로 출발했다.



다시 제주 동쪽 해안도로로 진입해 드라이빙을 즐기 시작한 지 30분 후, 올레 3코스의 신천목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곳은 제주를 주제로 했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고 알게 되었다. 한쪽은 푸른 바다, 다른 한쪽은 초록의 잔디밭이 인상적인 곳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지 관광객도 거의 없었다. 이 신천목장은 개인 사유지로 주인이 올레코스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올레길로 개방했다. 해안선의 길이는

700m에 불과하고, 이름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왜 사람들이 찾는지 알 수 있다. 시원한 바람과 파랑, 초록의 색의 대비는 그 어느 곳보다 '여기가 제주다'라고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제주 3일차

3일째는 한라산 영실코스를 목적지로 선정했다. 그동안 제주를 올 때마다 항상 한라산은 제외되었었지만 지난번 제주를 왔을 때 성악악 코스를 다녀온 뒤로는, 제주의 필수 코스로 인식이 되었다. 아침식사를 하고, 영실코스 주차장에 도착하니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물품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



작했다. 역시나 여기저기서 들은 대로 초반에는 평탄한 코스가 지속되다가 중반에 이르니 한라산 서쪽의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계단 코스가 시작되었다. 땀이 흐르고, 숨이 차고, 종아리가 당겨오고 몸은 힘들었지만 병풍바위를 비롯해 갖가지 영실코스만의 볼거리로 눈이 즐거웠고, 제주의 바람과 아래로의 풍경은 제주에서 한라산의 존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순간을 가져왔다. 멀리 푸른 바다와 군데군데의 오름들, 초록의 물결은 역시나 한라산 코스 중 가장 아름답다는 영실코스다웠다.



병풍바위를 지나 10여 분 더 오르니 평지가 펼쳐지며, 제주도 읍서에서나 본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 한라산 백록담의 남벽과 드넓은 평지는 마치 아프리카 초원이나 몽골의 초원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경이롭고, 낯설었다. 또한, 보통의 산과는 다른 한라산의 면모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다. 사진을 찍으며, 풍경을 보며 걸으니, 어느새 뽕밭마을 대피소에 도착했다. 뽕밭마을에서 남벽분기점까지는 왕복 2시간의 거리로 가볍게 다녀온 뒤, 대피소의 필수 음식인 사발면으로 점심끼니를 해결했다. 그즈음 비가 왔는데, 가벼운 비를 맞으며 걸으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역시 제주, 그리고 한라산이여! 한라산을 출발해 저녁으로는 모슬포항의 고등어 회를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가볍게 내리던 비는 어느새 굵은 소나기로 변해있었다.



제주 4일차 마지막 날

4일차 마지막 날에는 가파도를 다녀오기로 했다. 가파도의 청보리 축제가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지속되었기에 궁금증을 못 참고, 9시 첫배를 탔다. 가파도는 우도나 마라도처럼 섬 주위를 따라 가파우레코스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총 5Km로 도보로 1시간 30분이면 충분하다. 그렇지만 다음 11시 25분 배로 가파도를 나와야 했기 때문에, 해안도 보고, 청보리밭도 보기 위해 자전거를 대여해 가파도를 돌아다녔다. 가파도는 마라도에 비해 그저 조그마한 섬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은 점차 사라졌고, 아기자기한 멋과 푸른 느낌의 섬으로 인식되는 변화가 찾아왔다. 자전거 페달을 밟을수록 멀리 마라도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내 제주도의 해안선의 모습이 보였다. 역시나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시원하고, 상쾌했다. 청보리를 내가 가까이 본 적이 있었던가? 드넓게 펼쳐진 청보리밭은 색이 많이 바랬지만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새로웠다. 사진을 찍는 다른 여행객들을 보며, 그리고 잘 정비된 산책로 코스를 걸으며, 가파도만의 매력에 흠뻑 빠졌었다. 다시 모슬포항에 도착해 늦은 아침을 보말국수로 채우며, 다음 행선지를 물색했다.





다음 코스는 모슬포항을 시작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금능 해변으로 정해졌다. 제주도를 올 때마다 찾는 금능 해변은 바로 옆의 협재해수욕장과 달리 방문객이 많지 않고, 한적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푸른 바다 너머로 비양도가 보이는 풍경은 제주 서쪽 해변가만의 특징이다. 금능에서 잠시 쉬고 난 뒤, 오름을 마지막으로 올라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랑쉬, 용눈이, 노꼬메, 아부 오름을 그동안 다녀왔었는데, 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차로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금오름으로 향했다. 평지에서 정상까지 금오름으로 향하는 길은 좁은 1차선으로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라 마주치는 차가 없길 바라며, 정상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의 최대 변수였던 날씨는 역시나 도와주지 않았다. 금오름 정상은 오후 4시경이었으나 안개로 자욱했고, 스산한 느낌마저 들었다. 살짝 무서움이 들 정도여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성시이돌 목장을 지나 제주공항으로 향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제주 한 바퀴를 스피디하게 돌아보았다. 다시 올 날을 기약하며, 다음에는 올레길 걷기에 도전해볼 참이다. 🌿